

위너 이승훈, 비아이 마약 은폐시도 의혹?

YG사태 '점입가경'

가수 지망생 한서희 접촉
사건 은폐 시도 주장 일어
YG·양현석의 수사 개입
경찰 유착 의혹도 불거져

YG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23·김한빈)의 마약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YG의 또 다른 그룹인 '위너' 멤버 이승훈(27)이 가수 지망생 한서희(23)를 접촉,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서희는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넨 장본인이다.

한서희는 "(이승훈이 전화로) 비아이(YG 마약 자체검사에) 걸렸다고 했다. 저랑 같이 피웠다고 말했다. 급하게 만나자고 했다. YG 사육 근처로 갔다"고 지난 14일 온라인 연예미디어 디스패처에 밝혔다. 이승훈과 약속한 장소로 갔더니, YG 관계자가 나와 양현석(50·현재 사퇴) 대표와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이때를 2016년 6월이라고 특정했다. 한서희는 당시 양 대표와 만남에 대해 "양현석이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껐다. 경찰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몰랐다. (비아이) 대마 흡연과 LSD 구매를 자백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양 대표가 "우리 애들이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싫다"고 했다. (마)약 성분을 다 뺐기 때문에 검출될 일은 절대 없다고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서희는 기억했다.

한서희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근 YG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서희는 YG 연습생 출신이다. 2017년 YG 소속 그룹 '빅뱅' 멤버 탑(32)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서희를 대리하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는



'위너' 이승훈



'아이콘' 출신 비아이



한서희

"YG 소속 그룹 멤버가 비아이 사건에 개입해 무마를 시킨 정황이 있다"고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밝혔다.

한서희도 이날 양 대표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소셜 미디어에 밝혔다. "내가 열려하는 부분은 양현석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며 협박한 부분, 경찰 유착 등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 제보자가 나라는 이유 만으로 나한테만 초점이 쏠릴 것이 걱정된다. 나란 사람과 이 사건을 별개로 봐달라"고 주장했다.

비아이는 12일 자신이 마약을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마약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마약 흡입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후 팀을 자퇴했다. YG는 즉시 비아이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서 "소속 가수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비아이 마약 연루 무마한 것에 개입했다고 의심 받고 있는데 책임 영역을 가수 관리로 한정, 한 발을 빼는 모습이다.

하지만 YG와 양 대표의 수사 개입과 경찰 유착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양 대표는 성접대 의혹도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YG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뉴시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에 징역 6개월 구형



'더 이스트라이트'의 이석철·이승훈 형제.

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승훈 형제의 폭행 피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창환(56)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지난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형제를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프로듀서 문영일(31)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미디어라인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문씨가 3년간에 걸쳐 폭행하고 이를 방조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은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이 13~17세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임에 의의의 여지가 없고, 회사의 재산이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 등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는데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워보라고 한 점 등을 일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소속사 역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선고로 연예계에 만연해

있는 아이돌 학대행위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란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프로듀서를 30년간 해오면서 만들었던 아티스트들에게 단 한번도 욕설이나 체벌을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키울 때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대중들이 사랑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더 이스트라이트 애들은 너무 어려서

때문에 인성을 키우고 가치관을 올바르게 하는데 시간을 들였는데,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저희 회사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이 통감한다"고 말했다.

문씨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 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제일 먼저 사과하겠다"며 "지난 행동들이 후회스럽다"고 언급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회장은 2015년 3월중순부터 지난해 10월4일까지 문씨가 회사 연습실, 녹음실 등지에서 이들 형제를 폭행한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중순께 이들 형제에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하고, 피우지 않자 뒷머리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

양현석 "YG 모든 직책·업무 내려놓겠다"… 대표직 사퇴

"언론보도·구설 사실관계 조사과정 통해 진실 밝혀질 것이라 믿어"

양현석(50) YG엔터테인먼트가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했다.

양 대표는 "YG와 소속 연예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너무나 미안하다. 쏟아지는 비난에도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난 14일 이렇게 밝혔다.

"입에 담기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말들이 무분별하게 사실처럼 이야기되는 지금 상황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다"면서 "하지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고 대표 사퇴 이유를 전했다. "더 이상 YG와 소속 연예인들, 그리고 팬들에게 저로 인해 피해가 가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1996년 YG 설립 이후 23년간 제 인생의 절반을 온통 YG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쳐왔다고 토로한 양 대표는 "최고의 음악과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는 일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



이었고 제가 팬들과 사회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 생각해 왔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부로 YG의 모든 직책과 모든 업무를 내려놓으려 한다"면서 "제가 사랑하는 YG 소속 연예인들과 그들을 사랑해주신 모든 팬분들에게 더 이상 저로 인해 피해가 가는 상황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그는 "언론보도와 구설의 사실관계는 향후 조사 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뉴시스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패소… 법원 "결혼 유지하라"

홍상수(59)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감독이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년 7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홍 감독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법원은 한 달여 만에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혼 소송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을 거쳐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